

텔레비전 뉴스생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 창 현*

<目 次>

I. 서 론	II. 뉴스생산의 현상학
1. 문제제기	1. 뉴스생산의 조직적 특성
2. 뉴스생산에 대한 기존연구	2. 뉴스의 생산관행
및 현상학적 전망	III. 결 론

I. 서 론

1. 문제제기

뉴스가 객관적으로 사회현실을 반영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기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견해는 서구 대중지(penny paper)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오늘날 중요한 미디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 (Epstein, 1974:13-18). 이러한 미디어 이데올로기는 대중지가 정당지(partisan paper)와는 달리 어떠한 정치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하는 정치적 필요와 함께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일반 대중 모두를 독자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뉴스는 뉴스생산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현실(social reality)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뉴스 생산조직의 틀에 맞게 생산된 “구성된 사회현실(constructed reality)”을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이 현상학적 경향의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어 뉴스연구의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주었다. 구성된 현실로서의 뉴스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뉴스 텍스트의 의미 구조 분석과 함께 뉴스가 생산되는 조직적 특성과 그의 생산 관행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뉴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에 의해 어떻게 매개된 것이냐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뉴스생산

* 서울대 신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직이나, 그 생산과정을 뉴스의 이데올로기가 배개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텔레비전 뉴스는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체제를 갖기 때문에 뉴스 생산에 미치는 조직적 특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연구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뉴스의 생산이 갖는 조직적 특성, 뉴스생산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생산관행 (routine)으로서의 객관성 (objectivity) 그리고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적 특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뉴스생산에 대한 이같은 현상학적 관심이 뉴스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의 특성과 제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뉴스생산에 대한 기존연구 및 현상학적 전망

뉴스생산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는 뉴스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뉴스선택과정 (news selection process)을 연구한 것이다. 이들 연구자들은 뉴스 생산과정에서 수문장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흐르는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 (gatekeeper)라고 칭하면서 이들의 뉴스선택행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는 뉴스의 내용 즉 메시지의 선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통제되느냐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게이트키퍼 개념은 레빈 (Lewin, 1947:143-153)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화이트 (White, 1950:338-390)는 1950년 미국 서부 소신문사의 중견 편집장을 대상으로 어떤 뉴스는 보도되고 어떤 뉴스는 보도되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이 연구 결과는 뉴스 선택이 기자의 뉴스관과 경험, 그리고 뉴스에 대한 기대 등에 기초한 고도의 개인적 주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기버 (Gieber, 1964:174)는 1956년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16명의 편집장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과정을 연구했다. 이 결과 뉴스선택 과정에서 기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뉴스선택과정에 작용하는 뉴스룸 외부의 압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의 개인적 평가는 뉴스 결정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언론소유주의 가치는 뉴스룸의 환경에 폭넓게 확산되어 뉴스결정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게이트키퍼 연구는 뉴스선택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해내는 중

요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 연구 경향은 양적 분석에 머물렀으며 기미의 분석에서도 일정부분 제기되었던 뉴스조직의 관료적인 압력을 개인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분석함으로써 조직적인 생산관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즉 기존의 게이트키퍼 연구는 뉴스의 선택과정을 밝혀주기는 했으나 뉴스의 조직적 생산이 갖는 구조적 특성이 뉴스의 이데올로기 생산에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밝혀내주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물론 뉴스가 단순하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시각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뉴스생산에 관한 전통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가지 연구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슨(Schudson, 1989:263-282)은 이들 경향을 정치경제학적 입장(the political economy of news), 사회조직연구 입장(the social organization of newswork) 그리고 문화론적 (culturological approaches) 입장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뉴스연구⁽¹⁾의 기본관점은 사회적 산물로서 뉴스의 성격을 뉴스조직의 경제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뉴스생산기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보수성과 체제유지적 특성을 갖는다고 파악한다. 특히 사회계급들 사이의 미디어 소유에 의한 지배관계와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의한 지배로써 뉴스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궁극적으로 뉴스생산기구의 소유구조가 뉴스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경제결정론적인 시각을 벗어나지는 못함으로써 텔레비전 기구 즉 미디어내에 복잡하게 얹혀있는 관료제적 뉴스 생산관행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는데는 미흡함을 갖는다.

사회조직연구 입장에서의 뉴스연구⁽²⁾는 사회 조직, 직업, 직업 이데올로기 등을 연구하는 사회학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들은 정치경제학

(1) G. Murdock, "Political devience: the press presentation of a militant mass demonstration," in S. Cohen and J. Young(eds), *The Manufacture of News: Social Problems, Deviance and the Mass Media*(London: Sage, 1981), pp.156-175.; D. Schiller, "Transformations of news in the US information market," in P. Golding, G. Murdock and P. Schlesinger (eds), *Communicating Politics* (Leicester Univ. Press, 1986), pp.19-36.

(2) J. Galtung, & M.H. Ruge,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The presentation of the Congo, Cuba and Cyprus crises in four foreign newspap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2(1965), pp.64-91.; M. Fishman, *Manufacturing the News*(Austin: Univ. of Texas Press; 1980), p.51.

적 입장과는 달리 뉴스생산조직의 소유구조보다는 조직속에서 기자가 갖는 자율성의 한계와 조직내 의사결정과정 등을 파악하고 기자의 뉴스생산과정이 어떻게 조직적이고 직업적인 관행에 의해 구속되는 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 관점의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의도보다는 조직에 의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압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어떠한 체제에서도 궁극적으로 뉴스는 불가피하게 현실의 사회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론적 뉴스연구⁽³⁾는 뉴스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뉴스가 사회적 불평등 관계를 강화하고 기존 모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뉴스 텍스트와 제작자들의 사회적 경험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해보려는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들은 뉴스의 생산과정과 제작자 경험의 상응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뉴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무엇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참여관찰을 통해 뉴스생산조직과 뉴스생산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합으로써 뉴스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해내고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찾아내고자 했다(박명진, 1990:57-68).

본 논문은 이들 3가지 입장 중에서 뉴스생산의 조직적 특성과 관행이 어떻게 뉴스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매개하는가를 파악해주는 현상학적 연구경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연구자들은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면서 인간은 사회 제도의 규범을 제시하는 의미구성의 원천으로서 사회화를 통해 사회제도의 규범을 사용하도록 배운다고 주장한다. 이때 규범의 사용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창조적, 주관적, 해석적, 선이론적 행동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의미는 순간순간 사회의 구조들을 재생산하는 집단적 구성물이 된다(박명진, 1990:65). 이들 현상학적 연구경향은 뉴스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뉴스생산기구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뉴스생산조직과 제작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적 반응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이

(3) F. Pearce, "How to be immoral and ill, pathetic and dangerous, all at the same time: mass media and the homosexual," in S. Cohen and J. Young (eds.) 앞의 책, pp.284-301.; T. Trew, "Theory and ideology at work," in *Language and Control*(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pp.94-106.; J. Fiske & J. Hartley, *Understanding News* (London: Methuen, 1982).

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의 성과를 검토해보며 나아가 구체적인 생산관행 및 직업 이해율로기의 특성을 파악,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뉴스생산의 현상학

1. 뉴스생산의 조직적 특성

(1) 조직적 생산물로서의 뉴스

뉴스가 뉴스생산기구의 조직적 산물이라는 관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터크만(Tuchman, 1980)은 “뉴스란 언론사의 조직적 처리과정에 의해 생산되며, 조직적 행위 실천에 순응하는 뉴스 생산자의 산물이다”라고 했으며 골딩과 엘리어트(Golding and Elliott, 1979:206)는 “뉴스란 고도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생산관행이 만들어낸 문화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밴츠외 2인(Bantz, McCorkle, Baade, 1980:45-68)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이 일반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유사하다하여 언론을 하나의 뉴스공장(news factory)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오늘날 뉴스가 고도로 관료화된 뉴스 조직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적 생산이 의미하는 바가 조직내부의 음모적 담합이나 외부의 강제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조직내부의 뉴스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뉴스생산관행이다. 골딩과 엘리어트는 방송뉴스의 생산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뉴스는 뉴스룸 내부의 음모적 담합의 산물이 아니다.…… 뉴스는 뉴스수집과 생산구조의 필연적 결과이며 전문적인 방송업무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의 결과인 것이다”(Golding and Elliott, 1979:18).

즉 일선기자나 편집자의 의도적 판단이나 담합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기보다는 뉴스생산기구의 조직구조나 생산관행에 의해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선기자들은 그들 스스로 객관성을 강조하고 이를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강화시킨다. 이에따라 기자는 그들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기사선택을 하기보다는 조직내에서 충원 및 교육등의 과정과 여러가지 통제를 거치면서 관행화된 뉴스선택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갠스(Gans, 1980:196)는 “기자가 의식, 무의식적 견해와 현실선호 특히 지속적 가치가 담겨 있지 않은 기사를 작성할 수 없으며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기자의 가치관은 기자의 충원과정과 기자의 내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형성, 강화된다. 이 속에서 기자의 개인적 차별성보다는 뉴스생산기구 내부의 조직인이라는 동일성이 강조됨으로써 기자는 조직의 내적 성원이 되는 것이다.

뉴스생산과정에서 개인의 역할 즉 기자의 개별적 특성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업 (division of labor)에 근거한 뉴스생산체제의 채용에 있다(Golding and Elliott, 1979:207-20).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 그 조직의 비대함과 생산성의 극대화 추구논리에 따라 뉴스생산의 분업은 뉴스 생산과정에 폭넓게 확산되어있다. 이에 따라 기자 개인은 전문화된 자신의 영역만을 살펴보게 되면서 전체 뉴스생산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체 사회과정 속에서 사건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이 뉴스생산에 있어 조직의 구속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기자들의 능동적인 기사 확보과정이 제한된다. 특히 텔레비전은 신문과 달리 취재 및 기자작성이 기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촬영기사등과 협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영향이 더욱 강하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뉴스 생산에 있어서 기자나 제작자들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건들에 대해 기사로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능동적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상당부분 제한되어진 정보의 공급으로부터 선택과정은 존재하는 고도로 규범화되어진 뉴스 수집과정과 관행의 수동적인 실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Golding and Elliott, 1979:114).

이와같이 텔레비전 뉴스생산과정의 기본 성격은 뉴스의 선택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내면적 가치의 발현이 아니라 미디어 조직의 가치 및 생산관행의 반영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다(Soloski, 1989:207-228). 그러나 이러한 반영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현존하는 정치경제체제를 지지하고 정당화시켜낸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자들의 뉴스선택이 기존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보도하려는 의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뉴스, 사회제도, 프레임

텔레비전 뉴스는 바로 그 자체가 사회적 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일상적인 일회적 사건에 공적인 특성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뉴스는 아래의 특성을 갖게 된다.

첫째, 뉴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하나의 사회적 시청자들은 새로운 변화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일기예보를 알기 위해서 제도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극장의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서 또는 홍수나 화재 등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뉴스를 이용한다.

둘째, 뉴스는 합법적인 제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갖는다.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미디어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존 사회제도의 보수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스스로도 진보적 성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와같이 텔레비전 뉴스망 (news net)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기구에 기초함으로서 뉴스는 정부관료나, 시장, 청와대 비서관, 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취재하게 되고 이 결과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시민의 소리’라는 상징은 그의 소리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representation) 것으로 보여지지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representative)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뉴스는 현존 사회제도 특히 대의적 민주주의를 속에서 현존체제를 보이지 않게 강화시켜낸다.

세째, 뉴스는 조직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그 의미가 구축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뉴스는 뉴스생산조직의 제도적인 과정에 따르고 제도적인 실천에 부합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작업은 일반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구와의 긴밀한 결합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Tuchman, 1980:4-5). 이에 따라 뉴스는 합법적인 기존제도의 활동과 연관되고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나 시간망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 조직의 프레임 (frame)이 만들어내는 조직적 산물이 된다. 터크만은 텔레비전 뉴스생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프레임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뉴스수집의 집중화 : 중앙의 거대 통신사나 방송사가 뉴스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서 이들은 뉴스생산과정에서 중요한 뉴스 구성력을 갖게 된다.
2. 언론인의 취재망 : 기자들은 합법적인 기구를 중요한 뉴스원으로 삼음으로써 대안적인 견해를 얻기 힘들게 된다.
3. 언론조직의 관료적 위계체제 : 언론사내의 관료적 위계 체제가 뉴스로서 선택되는 사건의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4. 뉴스망에서 언론인의 위치 : 지리적 취재망, 조직의 전문화, 주제의 전

문화 등의 뉴스망에서 언론인의 위치가 뉴스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5. 언론인의 상호접촉과정 : 언론인의 접촉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준 관행이 뉴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의 프레임은 방송조직의 고유적 특성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뉴스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준거들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자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조직의 프레임이 정의한 테두리 내에서 무수한 사건들을 의식하고 지각하고 확인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3) 뉴스의 2차적 규정과정

텔레비전 뉴스는 조직화된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방송사의 구조적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기자들은 방송사내의(특파원등의 담당부서) 지위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구조(경제뉴스, 해외뉴스, 정치뉴스, 스포츠뉴스 등)에 따라 사건의 특정유형을 선택하도록 미리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뉴스생산과정에 있어서 기자들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인 기사 취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보다는 뉴스 조직의 기본틀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소유구조가 자본가의 소유체제로 구성되었다는 이유에서 단선적으로 뉴스가 현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뉴스생산자가 소유자의 적접적인 경제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일상적으로 상대적인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뉴스가 최종적으로 지배를 재생산해내게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뉴스 생산관행을 살펴보아야 한다(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and Roberts, 1978).

미디어는 그들 스스로 뉴스 아이템을 자율적으로 창조해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공인되고 신뢰할 만한 제도권의 취재원으로부터 특정 뉴스 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첫번째 이유는 뉴스생산의 내적인 압력에 기인한 것이다. 예컨대 마감시간에 대한 압박과 뉴스조직 내에서 정보원의 배치구조에 관련된 문제, 작업계획 등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기획된 사건(pre scheduled event)에 의존하게 되어 취재원의 의도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두번째 이유는 미디어의 보도가 불편부당성 그리고 객관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실(fact)’과 ‘의견(opinion)’

은 구조적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러한 전문적인 규범은 미디어의 보도내용이 가능하면 ‘신뢰할만한’ 정보원으로부터의 ‘객관적’이고 ‘권위적’인 발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은 ‘공인된’ 제도권의 취재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제도권의 발표가 그들의 ‘제도적 인 권력과 지위’ 때문에 신뢰할만한 취재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뢰할만한 취재원’은 ‘전문가’이다. 그들은 개인적 이해와는 상관없는 지식의 추구자로서 인식되어 그의 발표는 ‘객관성’과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같이 객관적인 규범은 미디어의 불편부당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수행하며 전문가의 중립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디어는 ‘신뢰할만한 취재원’이 제공하는 사건을 뉴스로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의 규정자’로써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훌륭 4인의 학자는 뉴스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을 2원적 규정과정으로 규정하여 그의 1차적, 2차적 규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Hall 외 4인, 1978).

뉴스의 1차적 규정과정(primary definer)은 미디어가 제도권력의 견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도권력의 대변인들이 뉴스의 1차적 규정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디어와 1차적인 규정자와의 구조적인 관련성은 제도권의 규정자로 하여금 문제되는 주제의 최초 정의나 또는 1차적인 해석을 실행하도록 한다. 이는 효과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정함으로써 후속 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뉴스 생산과정에서 미디어는 1차적 규정자에게 있어서 구조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적인 이념’의 전달은 뉴스생산과정에서의 비강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한 지배의 재생산과정은 지배권력의 음모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구조적인 관행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은 미디어 스스로가 권력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부과하는 변형의 과정을 통하여까지는 완결되지는 않는다. 1차적인 규정부분이 ‘권위적’인 규정자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정향성과 재생산(reproduction)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2차적인 규정자(secondary definers)는 미디어가 수행하는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이 포함되는 뉴스의 변형과정(transformation)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능동적으로 2차적인 규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첫째

로 미디어가 뉴스의 선택(selection)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1차적 규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모든 내용과 모든 부분이 미디어에서 재생산 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즉 선택을 통해서 미디어는 구조화된 기사원에 대한 기자들의 판단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것들을 변형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능동적인 작업은 한 사건을 완성된 뉴스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변형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각 뉴스기관은 각자 자신의 변형원리에 따라 일상적인 어휘체계로 일정부분 상이한 기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성이 광범위한 목소리를 다원주의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명확한 이념적 한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뉴스는 미디어 내의 뉴스생산과정속에서 지배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으며 또한 단순하게 수동적인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는 뉴스생산과정에서 일정부분 변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 2차적 규정과정은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 특성에 근거하게 된다.

2. 뉴스의 생산관행

(1) 객관성과 불편부당성

프라이버그(Freiberg, 1979:147-160)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순응과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전략은 국가의 중립적 이미지(neutral image)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갖는 중립성의 신화는 언론기구등을 통해 창출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달성하기 위해 언론 스스로도 중립성을 강조하며 사실을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된다.

여기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객관성(objectivity)이란 뉴스의 전통적 개념으로써 서구 대중지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념을 주장하던 정당지 시대의 뉴스 개념에서 벗어나 일반대중의 이념을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대중지 시대의 뉴스 개념이었다. 대중지 시대의 뉴스개념은 사실상 신문의 수입원이 정치적 후원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수입 체제로 변모하게 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미디어 이데올로기였다. 보다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보다 다양한 독자들을 확보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적 이념만을 지지해서는 안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자신이 불편부당하는 논리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chiller, 1979:46).

언론의 불편부당성은 그 스스로 사실(fact)에 근거한 보도 즉 객관주의적 보도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언론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공중의 파수견(watch dog)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두가지 자유주의적 언론의 명제 또한 바로 언론의 객관성을 요구했던 것이다(강명구, 1989: 59-82).

한편 객관성은 기자들의 신뢰성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더욱 보강되었다. 객관성은 가치배제를 표면에 내세우면서 실제적인 비판과 겸열 및 자기겸열의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게 했다(Chibnall, 1977:11-45). 그러므로 기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객관성이란 기자들과 뉴스조직 그리고 독자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합적 산물이다. 이에 따라 사건(event)은 정치적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facts)들의 연결로서 안전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솔로스키(Soloski)는 뉴스가 이와같이 사실들의 연결로서 제시됨에 따라 뉴스조직은 적어도 2가지 방식에 의해 외부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우선 기자는 사건에 대한 사실들을 제공한 정보원(sources)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기자가 아니라 정보원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자와 뉴스 생산조직은 편파보도나 부정확보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monopoly position)를 보장해준다. 만약 뉴스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태도를 갖고 보도하게 된다면 뉴스조직은 시장속에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의 관심을 취하는 뉴스조직과 과도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Soloski, 1989: 207-228).

이와같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객관성이란 가장 중요한 기자의 규범이며 여기로부터 뉴스생산에 관련된 직업 이데올로기들이 나타나게 된다. 기자들에게 있어서 객관성이란 그들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들이 사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가능한 한 공

평하고 균형있게 보도하려고 한다는 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질서 속에서 정당성이 확보된 사실들만을 공정성과 균형성의 이름으로 보도할 뿐이다(Soloski, 1989). 엔스도 객관주의와 기사내용의 보수화와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기자들은 첫째, 보도가 올바르면 올바르지 않으면 지배적 관점을 갖고 있을 때 둘째, 보도에 대한 반대가 없을 때 세째, 보도가 일반상식에 위배되지 않을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객관성이라는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현상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오늘날 뉴스생산 과정은 대중지의 증가에 복합해서 나타난 ‘객관성(objectivity)’의 명제를 수행함으로써 특성화되었다. 이러한 객관성은 상당 부분 상업적인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수용자의 어떠한 특정분파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수용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용자의 확보를 통해 광고수입의 극대화를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본질과는 달리 객관성은 ‘전문적인 능력의 표준화’로 그리고 ‘전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이데올로기’로서 합리화되어 있다.

(2) 관료적 통제와 전문가주의

맥베네트 (McBennett, 1979:181-193)는 기자 훈련체계의 총체적 효과는 기자들을 조직체계에 순응시킴으로써 수동적 조직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훈련은 이것이 이윤추구산업의 구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소유구조의 틀을 인정하게 되며 나아가 현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산물이 바로 기자들의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뉴스조직이 훈련체계를 통해 만들어낸 전문가주의는 기자와 편집자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일까.

기자는 사적 기업조직 속에서 일하게 되며 그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주에 의한 직접적 통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뉴스조직은 아주 개방적인 체제(open system)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개의 하부체제를 갖는다. 이를 하부조직은 각기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직의 전체목적과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진은 하부조직의 행동을 통제할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과정의 본성은

조직이 운용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하부구조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도 비공식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생산조직의 하부체제로서 뉴스담당부서는 고도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뉴스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뉴스의 결정은 빨리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논의하거나 집단적으로 의사자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뉴스부서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뉴스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충분하게 유동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뉴스의 선택과 처리과정에 상당한 자율성 (autonomy)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기자들의 행동통제는 뉴스조직에 있어서는 아주 힘든 문제가 된다. 특히 기자들은 의사나 판사등과는 달리 기자가 되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식의 표준화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에 따라 뉴스생산 조직은 전문가주의를 도입하여 기자들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⁴⁾

결국 뉴스생산기구인 관료적 언론조직과 기자의 전문가주의는 동일한 역 사적인 원천을 갖는 것으로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공고히 되었던 것이며 작업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전문가주의의 의존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Soloski, 1989).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주의에 의한 뉴스생산과정의 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솔로스키에 의하면 뉴스의 전문가주의는 기자들은 행동을 다음과 같은 2가지 양식을 통해 통제한다고 한다. 첫째, 행위의 전형과 규범(standards and norms of behaviors)을 만들어냄으로써 둘째, 전문주의적인 승진체계 (professional ladder)를 만들어냄으로서이다(Soloski, 1989). 여기에서 기자들의 행위의 전형과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써 앞 절에서 언급한 바있는 객관성이 나 다음 절에서 언급할 뉴스가치 등을 들 수 있다. 기자들에게 적용되는 전문가적 보상체제라는 것은 기자의 지위상승을 경영층까지 가지 못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는 전문가적 이상이 전문가에 한정된 것이지 조직의 경

(4) 자본주의 체제가 자율경쟁체제에서 독과점형태로 되면서 더욱 더 통제해야 할 많은 영역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문가주의가 이를 도왔다는 역사적인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 M.S. Larson,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 145을 참고하시요.

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러므로 뉴스생산 조직은 전문가주의를 통해 성공한 기자들을 뉴스생산기구의 경영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효율적으로 마지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경영 체제를 확보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기자들이 전문가로서 훈련받으면서 생겨나게 되며 기자들은 이들을 선호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대기자’, ‘대PD’ 등의 호칭이 이를 보조한다.

(3) 보수적 생산관행으로서의 뉴스가치

뉴스생산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주의는 뉴스를 인식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2가지 방식으로 관여한다. 쉬브날(Chibnall, 1977:11-45)은 이러한 첫번째 것으로는 뉴스에 관한 개념과 가치(concepts and values) 체계이며 두번째는 방송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전문적 뉴스가치(professional news imperatives of journalism)라고 구분하여 설명한다.

뉴스에 관한 개념과 가치체계는 사건들의 유형화를 통해 기사를 총체적 사회과정 속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정치, 인간흥미, 범죄, 연예 등으로 나누어 분절적으로 파악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기존의 의미를 지배적 의미구도 속에서 재해석해 한다. 이러한 것은 예컨대 ‘법의 지배’, ‘국가이익’, ‘정치적 파업’, ‘파격분자의 선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뉴스는 사회현실을 규정하고 구성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이들에 의해 형성된 지배적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다.

뉴스생산에 관계하는 중요한 개념과 가치체계로서 2분법적 가치체계는 현상의 질서에 기반을 둔 흑백논리적 현실구성을 낳는다. 언론에서 반드시 적

표 1. 뉴스생산과정에 나타나는 가치체계

긍정적이며 정당한 가치	부정적이며 부정당한 가치
합법, 이성	불법, 비이성
온건, 불편부당	과격, 편견
합의, 책임	독단, 무책임
협력, 공평	반목, 불공정성
질서, 강인	혼란, 나약
평화, 근면	폭력, 나태
관용, 선택의 자유	편협, 독점/회인
전설, 평등	파괴, 불평등
개방, 청렴	폐쇄, 부폐

용되는 전문적 가치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달성되는 전문가주의의 사회화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며 이를 이른바 ‘뉴스 가치(news value)’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가치는 즉시성, 드라마화, 개인화, 단순화, 흥겹게 하기, 보수주의, 구조화된 접근, 새로움 등이 그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즉시성 : 뉴스는 새로운 것 즉 바로 일어난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타성이 아니라 변화, 장기간의 과정이기 보다는 사건에 관련된 현재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사건에 관련된 깊이 있는 배경을 살피기보다는 세속적인 차원의 개략적인 소개에 그치게 되는 ‘사건 지향적인(event oriented)’ 뉴스가 된다. 그러므로 사건의 현실에서 역사적인 차원이 사상된 채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를 인스탄트 커피처럼 섭취하게 된다.

2. 드라마화 : 사건 지향의 뉴스는 드라마화를 강조함으로써 강화된다. 뉴스는 이윤경쟁을 마음에 두고 설계된 상업적인 지식으로 사건의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예컨대 여의도 농민대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상한 채 죽창 등의 형식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뉴스의 드라마화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화시키며 공중의 관심을 사회문제의 원인보다는 그 현상에 집중하도록 한다.

3. 개인화 : 뉴스는 인간 모습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명성에 대한 뉴스의 축점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그가 누구이며 그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이미지이며 대중적인 환상의 담지체이며 이상의 투사이며 상업적인 이익과 수탈의 대상인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책 갈등도 “兩金” 간의 갈등이니 “3金” 간의 갈등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 예이다.

4. 단순화 : 현실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를 통해서 흑백논리적으로 사실을 묘사한다. 특히 대중적인 뉴스는 지적인 능력의 편차를 갖는 대중들에게 빨리 흡수되어야 하고 쉽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언제든지 사회적 상황은 선과 악, 찬과 반, 노조와 정부, 온건과 급진, 그리고 여야 등으로 쉽게 나뉘어진다. 복잡한 현실은 결국 2분화되는 것이며 이것은 드라마화와 개인화를 가속화시킨다.

5. 흥겹게 하기 : 텔레비전은 흥미있는 누드와 스캔дал을 담은 뉴스를 함께

전달하게 된다. 이는 연예가의 스타나 축구스타, 배우, 범인 심지어는 정치인등의 활동 등이 담기는 내용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써 현실은 私事化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나 사회문제에서 멀어지게 된다.

6. 보수주의 : 현상을 기존의 의미구조 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뉴스생산관행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컨대 언론에 존재하는 마감시간이라는 것이 깊이있는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현실을 파편화시켜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7. 구조화된 접근 : 뉴스는 전문가의 권위있는 발표에 기초하고 있다. 미디어는 국가 권력의 프레임 안에 존재하게 되며 국가의 엘리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제도권의 뉴스는 반영되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뉴스는 반영되지 못하여 결국 뉴스는 지배구조만을 반영하게 된다. 특정집단은 체계적으로 과다하게 접근되는(over access) 현상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거의 뉴스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과다하게 접근되는 집단은 국가나 권력기관의 공식 대변인이나 '불편부당한' 논평과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공인된 전문가 등이다. 접근구조는 사회내 신뢰의 위계(hierarchy of credibility)에 기초하게 된다.

8. 새로움 : 뉴스는 신선한 뉴스의 앵글을 통해서 살아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움의 의무 때문에 부적당한 자료를 기사화하기도 하고 가끔은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관행적으로 보수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러한 8가지 뉴스 가치는 궁극적으로 언론사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게 되는 중요한 하부구조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현실에 담긴 역사성을 제거하고 심각한 사회구조보다는 흥미있는 개인의 문제로 관심을 옮기도록 한다.

III. 결 론

이제까지 텔레비전 뉴스생산의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몇가지 예를 정리해보았다. 이들 연구는 생산조직의 특성과 관행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구조적 성격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뉴스생산관행에 대한 분석은 이를 관행이 뉴스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형성의 매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게 해주고 있다. 우선 본론에서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고 이들의

한계를 지적해보겠다.

텔레비전 뉴스는 관료적인 구조 속에서 전문적이고도 조직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산물이다. 이러한 뉴스생산기구의 조직적 특성과 뉴스의 생산관행은 뉴스를 현상의 재생산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뉴스생산기구의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매체소유자나 기자들의 음모적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다. 뉴스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직업이데올로기와 조직적 생산구조의 관행 그리고 전문주의적 가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체계적인 가치개입이다. 뉴스생산조직 내의 구조와 분업적 생산관행은 기자들의 능동적인 기사선택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제시켜내며 뉴스망과 기존 권력기관의 긴밀한 연관성은 대안적인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봉쇄시켜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는 사회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기 보다는 지배권력의 시각에서 바라다보는 구성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편 뉴스의 객관성과 불편부당성 등의 직업 이데올로기는 뉴스가 그 스스로 중립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중요한 합리화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가치는 대중지 시대의 미디어 이데올로기로서 뉴스 생산기구의 보다 많은 이윤추구를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

그리고 방송사내의 훈련체계는 방송기자와 제작자들을 조직인으로써 관료적 체계에 순응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며 전문가주의 역시 비안정적인 작업환경 속의 합리화된 통제 메카니즘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에 의해 시도된 뉴스룸내의 생산관행에 대한 연구는 뉴스생산과 제작자들의 경험세계와의 상응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뉴스생산이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현존질서를 재생산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뉴스생산과정에 관여하는 뉴스망 등 뉴스생산조직의 프레임이 어떻게 뉴스생산의 기본틀을 규정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앞으로 현상학적 뉴스생산연구에 더욱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뉴스생산자의 행위규범과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뉴스텍스트의 생산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산된 뉴스텍스트의 성격과 생산자 의식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기자 및 제작자의 의식과는 달리 작용하는 외부의 압력과 구조적인 관행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장명구

1989 “탈사설의 시대에 있어 뉴스 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26:59-82.

박명진

1990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과와 그 쟁점,”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논선」 4, 서울 : 나남.

박영상

1983 “뉴스란 무엇인가? : 객관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학보」 4:135-154.

전환성

1989 “텔레비전 뉴스의 사회적 현실구성 기능에 관한 연구,” 「언론문화연구」 7:247-306.

Bantz, C.R., McCorkle, S., Baade, R.C.

1980 “The news factory,” *Communication Research* 7:45-68.

Chibnall, S.

1977 *Law-and-order news: An analysis of crime reporting in the British Pres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Cohen and J. Young (eds.)

1981 *The Manufacture of News: A Reader*. London: Sage.

Epstein, P.P.

1974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N.Y.: Random House.

Freiberg, J.W.

1979 “The capitalist state and the information media: the case of France,” *Media, Culture and Society* 1:147-160.

Gans, H.

1980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Vintage Books.

Gieber, W.

1964 “News is what newspapermen make it,” in L.A. Dexter and D. Manning White, *People, Society and Mass Communication*. New York: Free Press.

Golding, P. and Elliott, P.

1979 *Making the News*. London: Longman.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and Roberts, B.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Macmillan.

Lewin, K.

1947 “Channels of group life,” *Human Relations* 1:143-153.

McBennett

- 1979 "Disciplining the journalist: an investigation of training methods," *Media, Culture and Society* 1:181-193.

Murdock, G.

- 1981 "Political Devience: The Press Presentation of a Militant Mass Demonstration." 156-175 in S. Cohen and J. Young (eds).

Peter, D.

- 1982 "Capitalists vs. the media: an analysis of an ideological mobilization among business leaders," *Media, Culture and Society* 4:111-132.

Schiller, D.

- 1979 "An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9:46-57.

Schudson, Michael

- 1989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Media, Culture and Society* 11:263-282.

Soloski, John

- 1989 "News reporting and professionalism: some constraints on the reporting of the news," *Media, Culture and Society* 11:207-228.

Gitlin, Todd.

-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Left*. Berkel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rew, T.

- 1979 "Theory and ideology at work," in *Language and Contro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94-106.

Tuchman, Gaye

- 1980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White, D.M.

- 1950 "The gat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383-390.